

은혜로운 사랑의 전설적상징

부르끼나파소의 어느 한 신문사 사장 겸 책임주필은 평양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떠나면 려행길에서 쌓인 피로와 기후의 변동으로 하여 병을 앓게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날 그들일행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는 행사에 참가하게 되어있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게 되는 일생의 행운을 놓치게 될가봐 자기의 병세를 숨기느라고 무진 애를 썼다.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를 평양의 어느 한 중앙병원에 보내어 치료를 받도록 하시였으며 병원일군들에게 치료와 관련한 말씀까지 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듯 몸소 전화로 그의 병상태와 치료정형에 대하여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돌보시고 세계혁명을 령도하시느라 그토록 바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아프리카의 평범한 주체사상신봉자의 건강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고 치료정형까지 료해하신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의사에게 자기의 걱정을 이렇게 더놓았다.

《김일성주석은 참말로 우리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그이는 인간에 대한 은혜로운 사랑의 전설적상징이십니다.》